

# [광전자]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품질관리

## 1. 성장과정

<12년 개근을 통한 근면, 성실함 그리고 목표>

평소 참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참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밑바탕으로 근면, 성실함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부모님의 뜻을 받아 근면과 성실을 가슴에 품고 머리로 되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12년간의 개근이라는 소박하지만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쌍둥이는 나의 human network>

저는 저희 형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항상 붙어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의 친구가 형으로 착각하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네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먼저 다가서도 어색하지 않은 친화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과 축구동아리에서 운동을 하며 친해진 지인들과도 수시로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의 친화력은 다른 부서와의 소통과 호흡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친화력과 포용력을 갖춘 나침반>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다보니 여러 지인들이 저에게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주변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포용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처함에 있어서, 말을 아끼고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편입니다. 선불리 결정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최선책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 2. 성격 및 장단점

<꼼꼼함으로 얻은 최고의 결과>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꼼꼼하다는 소리는 물론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꼼꼼하다는 것은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꼼꼼함의 사례로 실험 수업 중 최종 발표 시 실험을 통해 얻은 최종 데이터를 삽입하여 PPT로 발표를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 저희 팀의 데이터는 좋았지만 만족스러운 만큼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써 팀원들에게 한 번 더 실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팀원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소한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고 타일렀고 결국 다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데이터 보다 이상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저희 팀은 팀별 발표에서 1등을 하였고 A+의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모든 일을 꼼꼼하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일에도 미리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해결책을 적어보는 습관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서두르지 말되 부지런하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쉬운 일도 어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차분히 계획을 세워 해나가면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서두르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차분히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계획한 대로 하지 않으면 서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 3. 관심분야 및 희망업무

####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기 위한 탐색>

평소 꼼꼼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던 저는 제 강점인 꼼꼼함으로 승부 할 수 있는 직무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탐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품질관리라는 직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꼼꼼함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관련 자격증에 대해 찾아보던 중 6 시그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급하는 6 시그마 그린벨트 과정을 LINK 사업단을 통하여 6 일간 하루 9 시간씩 총 54 시간에 걸쳐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ICDL 자격증을 LINK 사업단을 통해 4 일간 하루 8 시간씩 총 32 시간에 걸쳐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6 시그마 그린벨트를 취득하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의 과정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알고리즘에 따라 다시 되돌아가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흥미를 갖게 되었고 품질관리 직무에 대한 저의 의지를 한 번 더 키워주었습니다.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됩니다. 원가와 불량률을 줄이면서 뛰어난 성능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타 부서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품질이 관리 되어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제게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 4. 직업관 및 입사 후 포부

##### <사람됨과 인간관계의 중요성>

항상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머릿속으로 되뇌며 뛰어난 능력을 갖추되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실천해왔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마음이 맞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동료 및 선배님들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효율 뿐만 아니라 회사생활을 하는데 에 있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힘이 가장 필요한 직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확고한 목표와 신념>

먼저 입사한 후 가장 첫 번째로 회사의 시스템을 파악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그 환경 내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적응력을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 효율 면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업무를 착실히 배워 대리로 진급한 후 제가 맡은 직무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더불어 신입사원들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훈련장의 꿈도 갖고 있습니다. 입사 5 년차에는 국내의 지점들을 파견 다니며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세계로 나아가는 광전자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갈고 닦아 온 외국어 능력을 발휘하여 해외지사로 나가서 광전자의 위상을 드높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입사 후 10 년차에는 저의 최종 목표인 해외지사의 지사장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자 꿈입니다.

#### 5. 특기 및 경력사항

#####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운동>

어린 시절부터 구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축구화만 신고 다니고 축구 경기가 있으면 빠짐없이 출전하여 초등학교 시절 제 별명은 '싸커소'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는 농구에 매력에 빠져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특별활동 시간마다 친구들과 농구시합을 하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매주 저녁에 만나서 3~4시간가량 항상 운동을 즐겼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울 수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 보낼 수 있는 보약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 한 후에는 학교 농구동아리에 가입하여 타 학교 학생들과 시합도 하고 농구대회에 나가 뽐 경험도 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한 후에는 과 축구동아리 활동을 하며 어색하던 동기들, 선배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운동은 많은 것을 주었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사회에 나갔을 때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체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 <작은 시스템 변화로 능률을 높여보자>

군 복무를 마친 직후 학자금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해 건어물 물류창고에서 친구와 함께 약 2달

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일하며 복학 전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이전에도 결혼식장, 당구장 등 몇몇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봤지만, 이번 아르바이트는 몸을 써야 하는 고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건어물 관련 물류 창고에서 각지로 배송될 건어물들을 직접 분류하고, 수량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일을 배우고 일을 진행하는데 신속하게 일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건어물은 신선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선입선출(先入先出)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창고는 실장님과 직원들의 오랜 경험으로 특별한 표기 없이 암묵적으로 건어물들의 위치와 유통기한을 분류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이제 갓 일하기 시작하여 그 암묵적인 약속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동시에 신속한 일 처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 다음 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시스템 개선방법은 물품목록 및 유통기한을 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각나는 물품들을 종이에 매직을 이용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크게 글씨를 써두고 투명 양면 코팅지를 준비해 가서 물품을 분류하면서 건어물품들과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 물품 분류시간뿐만 아니라 선입선출(先入先出) 시스템 또한 잘 운영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부패하는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직접 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까지 일이 능률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과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 하는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복학을 위해 그만두게 되었지만, 실장님께서 너희 같은 직원들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칭찬해 주셨고,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맙다며 보너스를 챙겨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보너스도 좋았지만 돈을 떠나서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